

## ‘환경, 치유 그리고 정신건강’ 세 번째 이야기 <아동·청소년과 건강한 환경>

“정신건강과 지역사회”를 아젠다로 학문영역간의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연구단에서 연구성과 교류 및 확산을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환경, 치유 그리고 정신건강 심포지엄이 어느덧 세번째 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 심포지엄은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모색해 보고자, “아동·청소년과 건강한 환경”이라는 주제로 연구단과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아동·청소년 인구의 급속한 감소현상과 함께 이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 속에서 당사자 그룹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환경의 제공은 지역사회와 국가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미래의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의학적, 물리적 환경부문의 전문가를 모시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진솔한 논의와 대안을 찾기 위한 공간과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15:00-15:10	등록	사회: 이명수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15:10-15:20	개회식	개회사: 채철균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5:20-15:40	발표1	‘놀이환경과 놀이발달’ 선우현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교수]
15:40-16:00	발표2	‘발달에 적합한 교육 중재 환경의 실제’ 강소연 [서울시 어린이병원 행동치료실 총괄책임자 ]
16:00-16:20	발표3	‘아동학대와 아동성폭력에서의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를 중심으로’ 장형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16:20-16:40	발표4	‘어린이를 위한 공공병원 서비스디자인 사례와 과제’ 팽한솔 [서울의료원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 팀장]
16:40-17:00	휴식	
17:00-18:00	토론	노남숙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교수] 배은경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재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박 훈 [강원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